

# 핀테크 해외진출 전략

2020. 0. 0

## 목 차

- I. 핀테크 개요
- II. 현황 및 환경 분석 (국내외현황)
- III. 해외 진출 전략 제언

# I . 핀테크 개요

## □ 핀테크의 정의 및 특징

- 핀테크(FinTech)는 금융(Finance)과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,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
- 핀테크는 송금 및 결제, 금융 데이터 분석, 금융 소프트웨어, 금융 플랫폼의 4개 영역으로 핀테크를 분류

<표1> 핀테크의 분류

구분	내용	주요 서비스	주요 업체
송금 및 결제	편리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 결제 서비스	간편결제, 송금 해외송금, 환전	PayPal, TransferWize
금융 데이터 분석	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	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및 FDS 자산관리, InsurTech	IBM, Credit Karma
금융 소프트웨어	기존 금융업무의 효율성 향상	RPA, 인증 및 보안 RegTech	UiPath, Refinitiv
금융 플랫폼	다양한 금융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플랫폼 제공	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	LendingClub, Kickstarter

자료 : 산은 조사월보 (2018.8), 수정

\* RegTech :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.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핀테크

\*\* InsurTech :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. ICT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

\*\*\* FDS : Fraud Detetion System의 약자. 이상금융거래 패턴을 탐지하는 시스템

\*\*\*\* RPA : Robotic ProcessAutomaltion의 약자. 단순반복적인 업무 대체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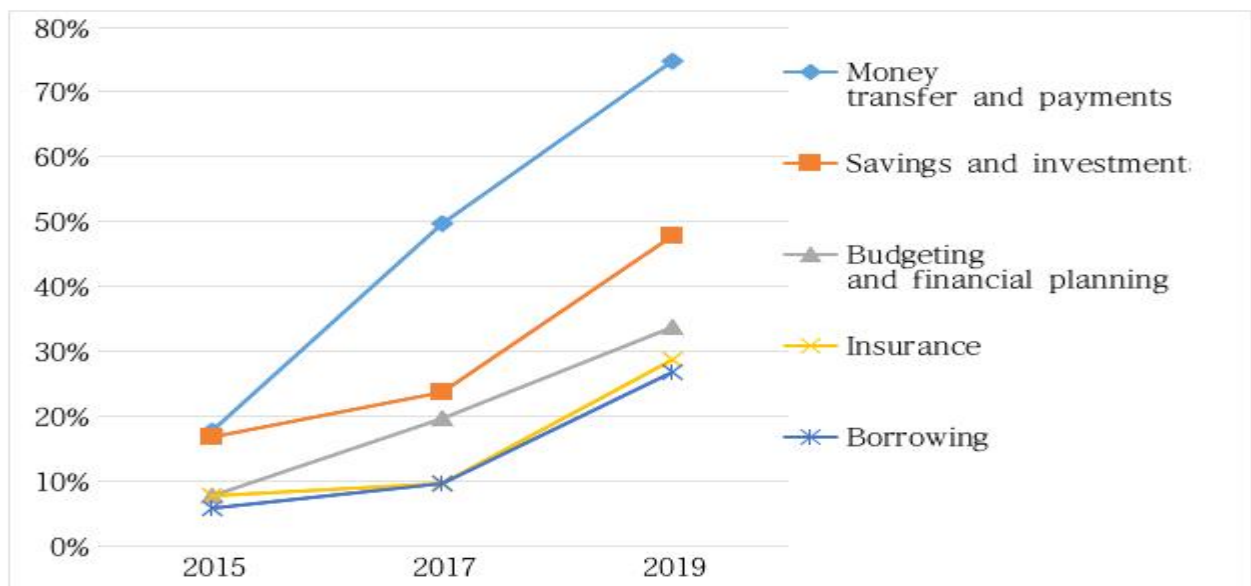
## II. 현황 및 환경 분석 (국내외현황)

### 1 전 세계 핀테크 산업은 성장과 글로벌화 단계

□ EY (Ernst&Young)의 Fintech Adoption Index 2019 보고서에 따르면, 전 세계 핀테크 평균 도입률은 64%

- 전세계 개인 소비자의 96%가 해외송금 서비스나 결제업체를 알고 있으며, 75%가 해외송금 서비스와 결제를 사용하고 있음.

<표2> 카테고리별 핀테크 도입률



자료 : EY Fintech Adoption Index 2019

- 중국과 인도에서 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정착함. (중국, 인도 핀테크 도입률 87%)

<표3> 국가별 핀테크 도입률

China	India	Russia	UK	Hong Kong	Singapore	South Korea	Brazil	Germany	Australia	USA	Japan
87%	87%	82%	71%	67%	67%	67%	64%	64%	58%	46%	34%

자료 : EY Fintech Adoption Index 2019

□ 모바일 결제와 InsurTech는 지속 성장 예상

-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핀테크

서비스 중 하나임. 스탠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, 2018년 1,544억 달러를 기록한 모바일 결제 거래 규모는 2021년 78% 증가한 2,74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- InsurTech는 2017년과 2018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. KPMG에 따르면 InsurTech 민간 투자 거래 건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242건이며, 특히 건강 보험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, 보험금 청구관리와 보험료 책정 관련 서비스가 주를 이뤘음.

## 2 국가별 동향

- 미국, 영국 등의 영미권 국가에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,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약진.
- KPMG의 '18년 전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의 국가별 분포는 미국이 19개 (1위), 호주가 10개 (2위), 중국이 9개 (3위)
- 영국 핀테크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, 영국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으로 혁신기술 촉진
  - 금융서비스 강국인 영국에는 8만 9,000개의 금융 및 보험 회사가 존재함. 이 중에서 핀테크 기업은 1,600개 이상이며 이 숫자는 203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
  - 영국 정부는 2013년 FCA(Financial Conduct Authority)를 설립. FCA는 Project Innovate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,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고,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 상용화 지원
- 미국 ('18) 비은행 금융기관, 핀테크, 혁신에 대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
  - 미국 재무부는 2018년 7월,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음.
  - 금융 규제 간소화를 제안하고, 대출과 결제, 재무계획 등 서비스 별 규제 방식 개선을 권고.

- 통합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, 소비자의 금융 정보의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

○ 중국 정부의 장기플랜 구축을 통한 핀테크 산업 주도

- '20년 2분기 중국 모바일 결제건수(1,716.4억 건) 및 결제액(2,064억 위안) 각각 전년비 26.99%, 33.61% ↑
- 중국인민은행은 3년 계획의 핀테크 발전계획을 발표하고, 2021년까지 핀테크 발전틀의 구축과 응용능력 강화를 실현.
- 중국 일반 대중들의 디지털화와 인터넷화, 스마트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한층 높아졌다는 방침임

○ 싱가포르의 도처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스마트 금융 센터로 성장

- 싱가포르통화청(MAS,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)은 가상은행 면허 5건을 발급
- 글로벌 기업 진출 활발 : '20년 바이트댄스, 텐센트, 알리바바 모두 싱가포르 디지털뱅크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함.
- 싱가포르통화청은 금융서비스의 빠른 테스트와 도입을 위해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(Sandbox Express) 제도 도입 (승인과정 21일로 단축)

### Ⅲ. 해외 진출 전략 제언

#### □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 필수

- 국내 시장만으로는 대형 핀테크 업체의 탄생은 불가능 (한국 고령화 시대)
- 2015년부터 인구 13억명 이상의 중국과 인도의 주도로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 확산
- 핀테크 특성상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, Cross-border 가능

#### □ 인도네시아와 베트남, 태국,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

- 삼정KPMG 경제연구원 '2019 아세안 주요국 핀테크 산업 동향 조사' 용역 보고서에서 한국 핀테크 업체들의 우선 진출 대상국
- 평균 연령이 낮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신기술 흡수가 빠르고 정부 차원의 금융 혁신 의지 높음.
- 아세안 주요국가에 대한 현지 영업력 확대,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국내 고객들, 그리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고객들도 활용 가능

#### □ 해외에 이미 진출해있는 국내 금융회사를 활용

- 국내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'19년 21개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, 30개 이상 핀테크 기업이 해외 진출을 준비중. (지급결제와 보안 분야)
- 국내 핀테크 기업이 독립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.
  - 현지 금융업라이선스, 로컬 문화 이해, 현지 금융기업 협력 어려움.
- 기술기업이라면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B2B2C 방식을 활용

#### □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과 법·제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

- 맞춤형 규제완화와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여건 조성, 핀테크 로드 개척과 해외진출 지원

○ 국내 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 필요

– 베트남 하노이에 핀테크랩 센터인 ‘디노랩 베트남’을 설치

○ ‘시장 조사 - 거점 구축 - 투자 연계’ 등을 일괄하여 지원

□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 생태계의 선순환, 글로벌 진출 기제 역할로서 역할 강화 방안 모색 필요

○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긍정적 역할

○ 예비선정단계 → 선정·스케일 업 → 실패시 재도전 → 지속적 금융혁신

○ 영국은 2019년 1월에 국제금융혁신네트워크(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, GFIN) 설립

– GFIN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‘글로벌 샌드박스’라고 알려진 국제 테스트 베드를 개발하고 진전시키는 것임.

## <참고 문헌>

- 1) 정보통신산업진흥원 (2019. 09.), 「2019 GIP 품목별 보고서 - 핀테크
- 2) 정보통신산업진흥원 (2019. 12.), 「싱가포르 핀테크 진출 가이드」
- 3) KDI 한국개발연구원 (2020. 05.), 「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」
- 4) KOTRA (2019. 12.), 「싱가포르 핀테크 규제 및 진출 가이드」
- 5) 보험연구원 (2017. 11.), 「연구보고서 2017-11,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」
- 6) EY (2019.), 「Global FinTech Adoption Index 2019」
- 7) KDB미래전략연구소 (2018.9), 「산은조사월보 제754호」
- 8)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(2016.12), 「핀테크(Fintech) 시장 동향」

## <참고 웹사이트>

- 1) [https://www.fsc.go.kr/info/ntc\\_news\\_view.jsp?menu=7210100&bbsid=BBS0030&no=33337](https://www.fsc.go.kr/info/ntc_news_view.jsp?menu=7210100&bbsid=BBS0030&no=33337)
- 2) <https://www.fca.org.uk/>
- 3) <https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Bbs/kotranews/6/globalBbsDataView.do?setIdx=322&dataIdx=184493>
- 4) <https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Bbs/kotranews/784/globalBbsDataView.do?setIdx=403&dataIdx=185064>
- 5) <https://news.kotra.or.kr/user/globalBbs/kotranews/942/globalBbsDataView.do?setIdx=424&dataIdx=184213>
- 6) [https://spri.kr/posts/view/21726?code=industry\\_trend](https://spri.kr/posts/view/21726?code=industry_trend)
- 7) <https://www.mk.co.kr/news/special-edition/view/2020/08/817217/>
- 8) <http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19/09/09/2019090900153.html>
- 9) <https://www.venturesquare.net/786694>
- 10) <https://journal.kiso.or.kr/?p=10113>
- 11) <http://www.digital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3038>
- 12) <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91101004003>
- 13) <http://news.bizwatch.co.kr/article/finance/2019/06/24/0026>